

#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

## 개 관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의 협력에 세 가지 우선 추진 분야인 ▲회복력 증진 ▲역량 강화 ▲연결성 재활성화를 중심으로 한다.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보여준 한국은 태평양도서국과 함께 협력하여 자유·평화·번영의 태평양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2022년 7월 제51차 PIF 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된 '2050 푸른 태평양대륙 전략'과 연계하여 태평양도서국 맞춤형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 회복력(Resilience):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재난 회복력 증진
- 역량강화(Reinforcement): 태평양의 역량 강화를 통한 태평양 잠재력 실현
- 연결성 재활성화(Revitalization):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연결성 재활성화를 통한 파트너십 강화

## 회복력: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재난 회복력 증진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위험이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후·재난 대응 및 회복력 증진은 양측의 가장 중요한 협력 분야 중 하나이다.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은 기후변화 관련 국제무대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기후재난 예측 및 대응관련 역량 강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며,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나가고자 한다.

### 1. 기후 회복력 증진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은 기후변화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한국은 기후 예측 및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태평양도서국의 기후 회복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의제	행동계획
기후 회복력 증진	기후변화 협력
	기후예측 역량 강화
	해양·수산 관측 및 분석
	해양수산자원 보호 및 생태계 복원
	친환경 에너지 공급
	생물다양성 공동조사 및 표본실 설치
	산림 협력
	온실가스 관리 전문가 양성

- (기후변화 협력)**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은 기후변화의 피해 완화 및 적응을 위해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한국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으로부터 태평양도서국들의 국가성을 보전하고 태평양도서국 주민들의 권리와 유산을 수호하기 위한 태평양 산호초 국가 이니셔티브(RNI)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고려할 것이다.

태평양도서국이 처한 특히 특별한 상황과 그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한국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어떠한 물리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1982년 해양법협약에 따라 확립된 해역과 그에 따른 권리 및 권원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기후변화 관련 해수면 상승으로부터의 해양 수역 보전을 위한 2021년 태평양도서국포럼 선언’을 지지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태평양도서국포럼(PIF)과 기후변화 적응·경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적응·경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 (기후예측 역량 강화)** 한국은 태평양도서국이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는 점을 감안, 이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기후 예측 역량 강화 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국은 선진 ICT 기술 및 기후 예측 기술을 바탕으로 태평양도서국 맞춤형 기후예측시스템(PICASO, Pacific Island Countries Advanced Seasonal Outlook)을 개선해나가고, 실무자 교육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역량 강화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특히, 태평양도서국 5개국(니우에, 마셜제도, 쿡제도, 투발루, 팔라우)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후예측시스템(PICASO) 서비스를 확대하여, 농업, 수자원 등 기후민감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생산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해당 사업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태평양도서국의 기후예측 역량 강화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 **(해양수산 관측 및 분석)** 해수면 상승, 연안 침식, 해양산성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양 및 수산 자원 분야의 기초 역량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은 태평양도서국의 해양수산 과학기술 기초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모아를 대상으로 해양산성화 관측시스템 고도화 및 관측 데이터 분석·활용 전문가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해양 관측, 분석,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의 범위를 전체 태평양 도서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해양수산자원 보호 및 생태계 복원)** 한국은 마코가이 수산양식 연구소를 재건하고,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인공어초 등을 활용한 수산자원 조성, 해초대·염습지 등 블루카본 관리와 같은 해양 생태계 복원 사업도 추진해나갈 것이다.
- **(친환경 에너지 공급)** 한국은 티나강 수력발전댐 건설 사업, 피지 태양광 발전소 구축 사업, 마셜제도 해수온도차 발전 사업 등 태평양도서국의 신재생에너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향후 저탄소 수산양식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고,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 **(생물다양성 공동조사 및 표본실 설치)**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한국은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코스리에주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생물표본실을 설치하고 관리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 **(산림협력)** 한국은 맹그로브 숲 조성을 통해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 피해를 줄이고, 타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수익창출 모델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지역 주민 생계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아시아-태평양권 맹그로브숲 연대 구성, 맹그로브숲 기술센터 조성 등을 통해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산림투자 기업 대상 세미나 개최 및 컨설팅 제공, 태평양도서국 해외 산림투자 실무가이드 제작 등을 통해 산림투자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한국 기업의 태평양도서국 산림투자 진출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 **(온실가스 관리 전문가 양성)** 한국은 인적교류를 통해 양측 간 기후변화대응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한국은 태평양도서국 공무원과 전문가를 매년 초청하여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태평양도서국과의 인적 네트워크 확대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 2. 감염병·재난 회복력 증진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은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 전염병 확산에 따라, 감염병 회복력 증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한국은 역량 강화와 기술 지원을 통해 태평양도서국의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의제	행동계획
감염병·재난 회복력 증진	감염병 방역시스템 컨설팅
	재난 안전 기술 전수
	해양기상예측 및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연안공간계획 지원 사업

- **(감염병 방역시스템 컨설팅)** 한국은 태평양지역의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한국의 3T(Testing, Tracing, Treatment)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ODA 컨설팅을 제공하고, 워크스루 선별검사소, 이동형 진단검사센터 등의 건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감염관리 앱 개발 지원 및 모니터링 전문가 육성을 통해 향후 감염병 확산에 대한 회복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 **(재난 안전 기술 전수)** 한국은 홍수 예·경보시스템, 자동우량경보시설 등 재난 안전 기술 이전과 현지 방재공무원 및 지역 주민 대상 교육·훈련을 통해 재난위험 최소화를 위한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 **(해양기상예측 및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한국은 해양기상 위성방송서비스, 태평양도서국 맞춤형 수치모델 일기도 제공 등을 통해 태평양도서국 해양기상 예측 및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연안공간계획 지원 사업)** 한국은 위성원격탐사를 통한 연안 데이터 수집, 태평양도서국 수요에 부합하는 연안공간개발계획 수립 지원 등을 통해 태평양도서국의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회복력 강화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 역량강화: 태평양의 역량 강화를 통한 태평양 잠재력 실현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은 해양수산,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역량 강화를 통한 태평양도서국의 잠재력 실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국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對태평양도서국 ODA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태평양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여, 태평양 지역 및 태평양도서국민의 잠재력 실현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 1. ODA 확대

한국은 매년 태평양도서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한-PIF 협력 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포함 ODA를 활용하여 對태평양도서국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향후, 태평양도서국 대상 ODA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태평양도서국의 발전 기반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의제	행동계획
ODA 확대	對태평양도서국 ODA 확대
	한-PIF 협력 기금 운영 강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력

- **(對태평양도서국 ODA 확대)** 한국은 태평양도서국 대상 ODA를 2027년까지 2배 확대할 예정이다.
- **(한-PIF 협력 기금 운영 강화)** 한국은 2008년 창설된 한-PIF 기금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가시성 제고, '2050 푸른 태평양대륙 전략'과 연계한 보다 효과적인 사업 발굴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력)** 한국은 파푸아뉴기니 항만의 현대화 사업 추진을

검토하는 등 태평양도서국의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EDCF의 고양허성 차관을 통한 인프라 건설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2. 역량 강화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은 경제개발, 해양수산, 디지털, 농업, 해양 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태평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국은 선진 기술 및 모범 사례를 전수하고, 초청 사업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

의제	행동계획
역량 강화	경제발전 경험 공유 사업
	불법어업 대응 역량 강화
	해양수산 전문가 양성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 구축
	어촌특화개발사업
	한-피지 해양수산 협력센터
	WTO 수산보조금 협정
	해양치안 역량 강화
	보건 장관회의 개최
	의료 전문인력 양성
	보건의료체계 강화
	나눔의료
	농식품 생산성 향상 및 유통구조 개선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
	새마을금고 개발협력사업

### <경제 정책 역량 강화>

- **(경제발전 경험 공유 사업)**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태평양도서국에 필요한 맞춤형 경제 정책 모델을 제공하여 태평양도서국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 <해양·수산 역량 강화>

- **(불법어업 대응 역량 강화)** 한국은 불법어업행위 원격 감시를 위한 선박탐지모듈 개발·설치 및 지속적인 기능 보강 사업, 불법어업 대응 역량 강화 국제 워크숍 및 유관기관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역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 **(해양수산 전문가 양성)** 한국은 태평양도서국의 식량안보 문제 해결 및 해양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고위급 해양수산 리더 양성을 위한 박사 과정을 개설하고자 한다. 또한, 수산자원관리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을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교육 과정을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은 우수한 해운해사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기사, 국제 읍서버 등을 양성하기 위한 초청연수를 실시하고자 한다. 특히 여성들의 적극적인 해운분야 진출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 해기사 양성에 기여할 것이다.

-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 구축)** 해양쓰레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해양쓰레기 예방·수거·운반·처리·재활용부터 주민 행동 변화 등 인식 증진까지 전반에 걸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어촌특화개발사업)** 한국은 태평양도서국 어촌마을의 자립 능력 강화를 위해 투발루를 대상으로 소규모 어항 건설, 수산시장 리모델링을 통한 관광업 활성화, 어업인 역량 강화 등을 통합 지원하는 어촌특화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협력 대상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한-피지 해양수산 협력센터)** 한국은 한-피지 해양수산 협력센터를 통해 해양분야 ODA 신규사업 발굴, 운영지원, 연구개발 등을 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동 센터의 범위를 한-태평양도서국 협력센터로 확대하고, 태평양도서국의 해양수산분야 역량 강화에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
- **(WTO 수산보조금 협정)** 한국은 태평양도서국포럼 WTO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수산보조금 협정을 이행하고,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인 WTO 회원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등적인 대우를 포함한 포괄적인 협정을 위한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 <해양 안보 역량 강화>

- **(해양치안 역량 강화)**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은 양측 해양치안기관 간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한국은 태평양도서국 공무원 대상 초청 연수를 통해 태평양 도서국 해양치안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보건역량 강화>

- **(보건 장관회의 개최)** 한국은 태평양도서국과 보건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보건 분야 역량강화와 지역적·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 **(의료 전문인력 양성)**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 및 각종 보건 위협에 따라, 한국은 태평양도서국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거점센터를 구축하고 전문 교수인력을 양성하는 등 태평양도서국의 의료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피지를 대상으로 국립 의과대학 전문인력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여타 태평양도서국 대상으로 사업 범위를 넓혀 나갈 것이다.
- **(보건의료체계 강화)** 한국은 태평양도서국의 지리환경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보건의료·ICT 대응체계 구축 지원을 통해 태평양도서국의 비대면 진료 기반 감염병 및 만성질환 관리에 기여하고자 한다.
- **(나눔의료)** 한국은 지속적이고 해결되지 않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태평양도서국 환자들을 초청하여 치료하는 나눔의료를 통해 모든 태평양도서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 <농업 역량 강화>

- **(농식품 생산성 향상 및 유통구조 개선)** 한국은 태평양도서국의 지리·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국가 환경에 적합한 농식품 생산 기술 등을 전수하고, 농업협력 초청연수 등 농업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태평양도서국의 농식품 생산성 향상 및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 <지역개발 역량 강화>

-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 한국은 마을 환경 개선 및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일부 태평양도서국에서 시행중이던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지속하고 후속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공무원 대상 새마을 운동 초청연수 사업 대상국을 모든 태평양도서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금융 역량 강화>

- **(새마을금고 개발협력사업)** 한국은 마을자조금융 설립 지원을 위한 새마을금고 초청 연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새마을금고 ODA 사업 대상국을

확대하고, 디지털 전환 등 새마을금고 업무 고도화를 통해 금융분야 역량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연결성 재활성화: 포스트코로나 시대 연결성 재활성화를 통한 파트너십 강화**

코로나로 인해 소강 상태였던 한국과 태평양도서국간 연결성의 재활성화는 양측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이다.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은 장기적 협력 강화를 위해 인적·물적 연결성 및 디지털 연결성을 강화하고, 문화·인적 교류를 증진시켜 나가고자 한다.

**1. 인적·물적 연결성 및 디지털 연결성 증진**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및 양측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인적·물적 연결성 증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국은 태평양도서국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가 관광분야라는 점을 감안하여, 인적 연결성 증진을 통한 관광 산업 촉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물적 연결성 및 디지털 연결성 증진 및 이와 관련된 정책을 통해 양측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의제	행동계획
인적·물적 연결성 및 디지털 연결성 증진	연결성 촉진
	ICT 연결성 촉진
	한-태평양도서국 무역투자추진 프레임워크
	중소기업 지원 정책 역량 강화
	중소기업 전자 상거래 활성화 사업
	디지털분야 장관회의 개최

- **(연결성 촉진)** 한국은 태평양도서국과의 연결성 증진을 위해 항공 및 해상운송 협력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 **(ICT 연결성 촉진)** 태평양도서국의 ICT 연결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개발 및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 **(한-태평양도서국 무역투자추진 프레임워크)** 한국과 태평양도서국포럼은 무역투자추진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세계 경제에 위협이 되는 에너지 안보, 공급망 파괴 등 글로벌 위기에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다.
- **(중소기업 지원 정책 역량 강화)** 한국은 태평양도서국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담당자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지역 활동을 지원하여, 태평양도서국 내 중소기업 생태계

촉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국은 태평양 인프라 이니셔티브(Pacific Quality Infrastructure Initiative), 태평양 전자 상거래 이니셔티브(Pacific E-commerce initiative)에 주목하고, 향후 관련 분야 협력에 대해 추가적인 협의를 해나가고자 한다.

- **(중소기업 전자 상거래 활성화 사업)** 한국은 전자상거래 도입 및 가속화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거리의 제약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디지털분야 장관회의 개최)** 한국은 태평양도서국 디지털 분야 장관을 초청하여 최초로 디지털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디지털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향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 2. 한-태평양도서국 교류 증진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인적 문화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양측은 장기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 외교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례적인 회의체를 마련하는 등 소통의 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의제	행동계획
한-태평양도서국 교류 증진	태평양도서국 인사방한 초청 확대
	스포츠 발전 지원
	일반연수제도
	해양수산 네트워크 강화
	언론인 교류
	외교 인프라 강화
	對태평양도서국 외교 강화

- **(태평양도서국 인사방한 초청 확대)** 한국은 양측 인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해외 유력 고위 인사 초청 및 외교관 한국언어문화 연수 등 초청 사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스포츠 발전 지원)** 한국은 스포츠 동반자 프로그램, 선수초청 합동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체육 분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기존 일부 태평양도서국을 대상으로 진행중이었던 스포츠 지도자 교육을 확대하고, 스포츠 행정가 교육도 실시하는 등 태평양도서국의 스포츠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일반연수제도)** 한국은 투발루에 일반 연수 제도를 도입하여, 참치가공공장 등에서 실습 연수를 진행하는 등 해양수산 전문가 양성에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
- **(해양수산 네트워크 강화)** 한국은 해양수산 국제협력 컨퍼런스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해양수산 분야 양국간 정부 관계자, 전문가 등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 **(언론인 교류)** 한국은 언론인 교류 사업을 통해 태평양도서국과 한국간 언론 분야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외교 인프라 강화)**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은 장기적인 협력의 토대가 되는 외교 인프라를 상호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 일환으로 한국은 니우에와의 수교를 통해 태평양도서국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태평양지역에 공관을 추가 개설할 것이다.
- **(對태평양도서국 외교 강화)**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은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회의 주기를 2년으로 정례화하여 양측간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만들고,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한국은 여타 국가들과 對태평양도서국 협력 및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